

미국 케이블 및 정보통신 협의회(CTAM), 3DTV 시장 성장에 긍정적 전망 제시

2011. 7. 11

Overview

최근 미국 케이블 및 정보통신 협의회(CTAM)가 시장조사업체 엔피디그룹(NPD Group)에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DTV를 보유한 미국 소비자의 87%가 영상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D 안경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3DTV 보급 확대에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Briefing

미국 3DTV 보유자의 60%, 가격 대비 영상 품질에 만족...

- 미국 케이블 및 정보통신협의회(CTAM;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for Marketing)는 미국 소비자들의 3DTV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보고서 'Pulse: What's Next for 3DTV'를 발표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3DTV 보유자의 87%가 3D 영상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보유자 중 60%는 3DTV의 가격 대비 품질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0년 조사 당시 3D TV 보급 확대의 3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3D 안경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미국 케이블 및 정보통신협의회의 작년 조사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3DTV 단말(68%), 3D 안경 착용으로 인한 불편(57%), 3D 콘텐츠의 부족(44%) 등으로 인해 3D TV 구매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3D 안경 착용으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한 TV 시청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3DTV 보유자 중 47%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안경 착용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자의 55%는 안경의 착용감(fit of glasses)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3DTV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3DTV 시장 성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는 다소 상반됨
 - 미국 케이블 및 정보통신협의회의 차 비어레스(Char Beales) 회장은 "업계 전문가들은

3DTV 시장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3D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o 한편, 3DTV 보유자의 40%만이 현재 제공되는 3D 콘텐츠의 양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3D 콘텐츠 부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3D 콘텐츠는 영화로 나타났으며, 미국 3DTV 보유자의 93%가 3D 영화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Analysis

그동안 3D 안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안경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장시간 3DTV를 시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3DTV 시청은 어지럼증 및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대다수 젊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선호한다는 점과 3D 안경의 투박한 외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3DTV 보급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번 연구 결과는 3D 안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3DTV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는 3D 안경 가격 인하 및 기술 개선, 다양한 제품 출시로 인한 선택폭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시바, 엘지전자, 소니 등이 선보인 무안경식 3DTV 제품은 낮은 해상도와 비싼 가격으로 상용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1. PRWeb, 'Movies Hold Top Spot Among 3DTV Owners', 2011. 6. 14
<http://www.prweb.com/releases/2011/6/prweb8569454.htm>